

지역 소식통

완주군, 2024 치매관리사업 우수기관 표창 수상

완주군이 '2024년 치매관리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전북 특별자치도 표창을 수상했다. 완주군에 따르면 이번 표창은 도내 14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됐고, 완주군은 치매예방, 진단, 치료, 치매 환자 관리 및 가족 지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군은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진행했다.

또한 치매극복선도단체, 치매안심가맹점 등을 활성화하면서 지역사회의 치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최근에는 완주경찰서와 업무협약을 맺어 치매안심망을 강화했고 치매환자 주간보호센터 운영, 치매치료비 및 조호물품 지원, 찾아가는 인지심리검사, 치매안심센터 분소 운영 등을 통해 치매환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치매관리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김주=염재복 기자

김제, 쓰레기 없는 쾌적한 '내내내 캠페인' 추진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30일 자율적 시민 참여 유도를 통한 깨끗한 우리 동네 만들기 운동으로 '내내내(내집, 내가게 앞, 내가 청소하기) 캠페인'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내내내 캠페인은 내 집, 내 가게 앞의 담배꽂이, 낙엽을 청소하고 쓰레기 배출시간 준수, 종량제 봉투 사용,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등에 대해 자율적인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캠페인이다. 이날 개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문제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과 같이,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한 곳을 중심으로 불법투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내내내 캠페인을 통해 깨끗한 거리를 조성한다는 내용 등을 알렸다. 정성주 시장은 "매일 하는 작은 행동들이 하루하루 쌓여서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성장도시 기반 구축 총력

정성주 김제시장, 비가격 경쟁력 성공 기업 알록스·이엔푸드 현장 방문

정성주 김제시장이 다양한 기업지원을 통해 성장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시는 30일 비가격 경쟁력으로 성공한 국내 유일 상용차용 단조 알루미늄 휠 제조 회사(알록스)와 닭가슴살 정통 수비드 조리법으로 닭가슴살 부분 최초 고품질화 우수식품 지정기업(이엔푸드) 현장을 찾았다고 밝혔다. 정 시장의 이번 기업 방문은 현장에

서 답을 찾고 '전북권 4대 도시'로 응모하는 김제를 만들기 위한 기업 소통행보다. 알록스는 국내 유일 상용차용 단조 알루미늄 휠&허브를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 전문회사다. 꾸준한 R&D로 회전단조기술(Rotary Forging)과 반응고단조기술(Liquid Forging)의 독보적 기술력을 인정 받아 군수용 휠 공급(2024년 하반기예정) 및 불보, 일본,

유럽, 북미에 수출 진출하였고, 지난해 수출액은 740만불(약 93억원)을 달성했다. 또한 전기·수소 차량 및 국내 프리미엄 승용차량에 알록스의 단조 알루미늄 휠의 사용이 확대 공급되면서 고품질 전략으로 저변 확대가 예상된다. 이엔푸드는 닭가슴살 식품 콘텐츠 기업이며, 정통 수비드 조리법으로 닭가슴살 부분 최초 고품질화우수식품 지정(2022년 12월)됐으며, 건강과 미용 분야에서 소비된 닭가슴살을 실버푸드 식품으로 도전에 성공한 전북 스타 기업(2020년 선정)이다.

더불어 지난 2022년 베트남에 59만불 수출로, '22년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처음 수출 최우수부문' 수상에 이어 2023년 102만불(약13억) 수출을 달성했다. 정성주 시장은 "고품질 제품 생산으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 방문을 통해 다양한 소비 트렌드 분석과 지속적인 R&D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고, 다양한 기업지원을 통해 성장도시 기반을 구축하는 등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시는 30일 비가격 경쟁력으로 성공한 가습살 정통 수비드 조리법으로 닭가슴살 부분 최초 고품질화 우수식품 지정기업(이엔푸드) 현장을 방문했다.

옛 동진강 휴게소, 스마트 복합쉼터로 탈바꿈

'지평선 새마루' 6월 5일 개관

김제시(시장 정성주)의 관문이자 새만금과 변산반도의 진입도로인 김제-부안 간 국도 23호선 도로변에 위치한 (구)동진강휴게소가 리모델링과 주변 환경 정비사업을 통해 지평선 새마루 스마트 복합쉼터로 탈바꿈한다. 시는 '지평선 새마루' 본격 운영을 알리는 개관식 행사를 6월 5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관식은 김소영 캘리그래피 퍼포먼스 등 식전공연(오후 1시 30분)을 시작으로 공식행사 및 식후행사, 부대행사(플리마켓,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다채롭게 진행될 계획이며 정성주 김제시장, 김영자 김제시의회의장을 비롯한 정·관계 주요 인사,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1992년 죽산면 서포리 동진강변에 주유소와 휴게·편의 시설을 갖춰 시민들과 여행객들의 사랑과 추억



김제 부안간 국도 23호선 도로변에 위치한 지평선 새마루 스마트 복합쉼터.

이 갖든 (구)동진강 휴게소는 국도 23호선이 4차선으로 확장되고 도로 선형이 바뀌면서 2012년 이후 문을 닫고 10년 넘게 방치되면서 김제시의 장기 해결 과제로 남아 있었다. 시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그동안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구)동진강 휴게소 활성화 방안 아이디어 공모 등을 실시해 돌과귀를 마련하고자 했으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다가 2021년부터 국토교통부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30억 원)과 전북도 햇살가득 농촌재생프로젝트사업(30억 원), 김제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7억 원)을 연계 추진해 방치된 유휴시설을 새롭게 복합시설로 리모델링 했다. 지난해 9월 시민대상 설문조사 결과 새로운 쉼터를 의미하는 '지평선 새마루'로 명칭을 최종 확정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맛·품질 뛰어난 '완주 삼례수박' 출시

군, 6월 말까지 12브릭스 이상만 출하... 대항마트·온라인서 판매

여름철이 되면 소비자가 먼저 기다리는 완주군 삼례 수박이 출시됐다. 30일 삼례농협(조합장 강신학), 수박공선회가 삼례농협 산지유통센터에서 삼례수박 출하 기념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유희태 완주군수를 비롯해 수박공선회 회원, 농업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수박 출하를 기념해 삼례수박의 맛과 품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식회와 홍보용 수박을 증정하는 이벤트가 진행됐다. 삼례농협과 수박공선회는 일반수박 100통, 블랙위너수박 270통, 총 370여 통 규모의 비닐하우스에서 6월 말까지 12브릭스(Brix) 이상인 수박만 수확해 출하한다.

특히 블랙위너수박은 일반수박보다 껍질이 얇고 당도 역시 13~14브릭스(Brix)로 매년 높은 매출을 달성하고 있다. 맛과 품질이 매우 뛰어나기로 유명한 삼례수박은 우수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철저한 품질관리와 선별 과정을 거쳤으며, 재배 농가 모두 GAP 인증까지 받아 안전농산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있다. 업선원 삼례수박은 하나마트, 롯데마트, 온라인쇼핑몰(11번가, 우체국쇼핑, 지마켓, 옥션, 카카오톡)에서 판매된다. 완주군수는 "고품질 수박을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삼례수박의 명성을 유지 및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시립도서관, 리모델링 기간중 도서 대출 서비스 운영

김제시립도서관이 리모델링 기간에도 쉽게 도서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해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김제시립도서관은 시민 중심의 열린 공간을 재구성하고자 리모델링 작업 공사를 오는 7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예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서관 공사로 인해 16만 장서를 만날 수 없게 되는 시민을 위해 김제시립도서관은 적극적 도서 대출 서비스로 △일일 대출 서비스, △시민체육관 자료실 이전 운영,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 △서점 가면 바로대출서비스 등 변화된 서비스를 운영한다. '일일 대출 서비스'는 리모델링 기간에 앞서 오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 실시하며, 개인 1인당 최대 50권을, 가족회원의 경우 최대 200권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반납기간은 25년 5월까지로 이 서비스는 재개관으로 도서관 정상화가 됐을 경우 빠른 반납이 선행돼야 한다. 또한 '시민체육관내 복합자료실'을 구성하여 리모델링 기간동안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4년에 새로이 구입한 신간도서 4천권과 신문, 잡지 등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대출 반납이 가능하다. 덧붙여 최근 독서 형태 변화에 따른 최신의 인기도서를 언제 어디서든 원할 때 볼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도 홈페이지를 통해 준비 중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금지 안내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올바른 사용을 주민들에게 안내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은 일부 특정지역에 100% 오물분쇄·배출하는 분쇄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입법예고가 추진된 바 있다. 하지만 마치 이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는 일부 업체의 과장·허위광고와 불법 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며, 국가공인 시험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오물분쇄기에 한해 일반 가정에서만 판매·사용이 가능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다. 시에 따르면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다만,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한국상하수도협회로부터 음식물찌꺼기를 20% 미만 배출한다고 인증 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나 일체형이 아닌 제품,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가 20% 이상 하수관으로 배출되는 제품은 모두 불법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업체들이 인터넷 쇼핑몰과 홍보용 전단지에서 품질 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광고한 뒤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판매해 옥내 배수관이 막혀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악취가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